굿바이! 캡틴 2년 뒤 만나요

광주FC 임선영 경찰청축구단 입대

광주서 프로생활 시작…원클럽 100경기 출전

1부 잔류 마음고생했지만 동료 덕분에 이겨내

김은선·김동섭 등 원년멤버들과 새 출발 기대

머리를 휘날리며 그라운드를 누비던 광주 FC의 꽃미남 임선영. 그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찰랑거리는 머리를 짧게 잘랐다. 대학교 신입생 시절 이후 처음으로 삭발을 한 임선영이 24일 논산훈련소로 떠난다. 광주 FC 선수로 뛰었던 지난 5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내년 시즌 그는 경찰청축구단의 임선영이 된다.

광주 FC의 원년 멤버인 임선영은 "입대 전날이라서 친구와 같이 삭발을 했다. 서로 보면서 많이 웃었다. 웃기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정말 군대를 가나보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직 실감이 잘 나지 않는다"고 웃었다.

부담감으로 시작했던 2015년. '캡틴'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던 그는 웃으면서 광주를 떠날 수 있는 게 다행스럽고 감사하다.

임선영은 "올해는 마음도 몸도 힘들었던 시즌이다. 그런데 몸보다는 마음이 더 힘들었던 것 같다. 잔류 걱정을 해야 했던 해였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었다. 개인적인 목표가 팀을 잔류시키고 군대에 가자는 것이었다. 절실했는데 그걸 이뤘다"며 "안도감도 들고, (김)호남이나 여름이나 후배들에게 바톤 터치를 하고 가는 느낌이다"고 뒤를 돌아봤다.

무거웠던 주장 완장의 무게를 덜어줄 것은 든든한 동료들이었다. 힘들기보다는 고마움이 가득했던 주장의 시간이었다.

임선영은 "내가 딱히 짐을 짊어지고 그런 것은 아닌데도 주장을 하면서 마음의 부담은 있었다. 그런데 딱히 힘든 것은 없었다. 워낙 애들이 잘 따라주고 알아서 잘해줬다. 나도 애들 덕분에 편하게 수월하게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동료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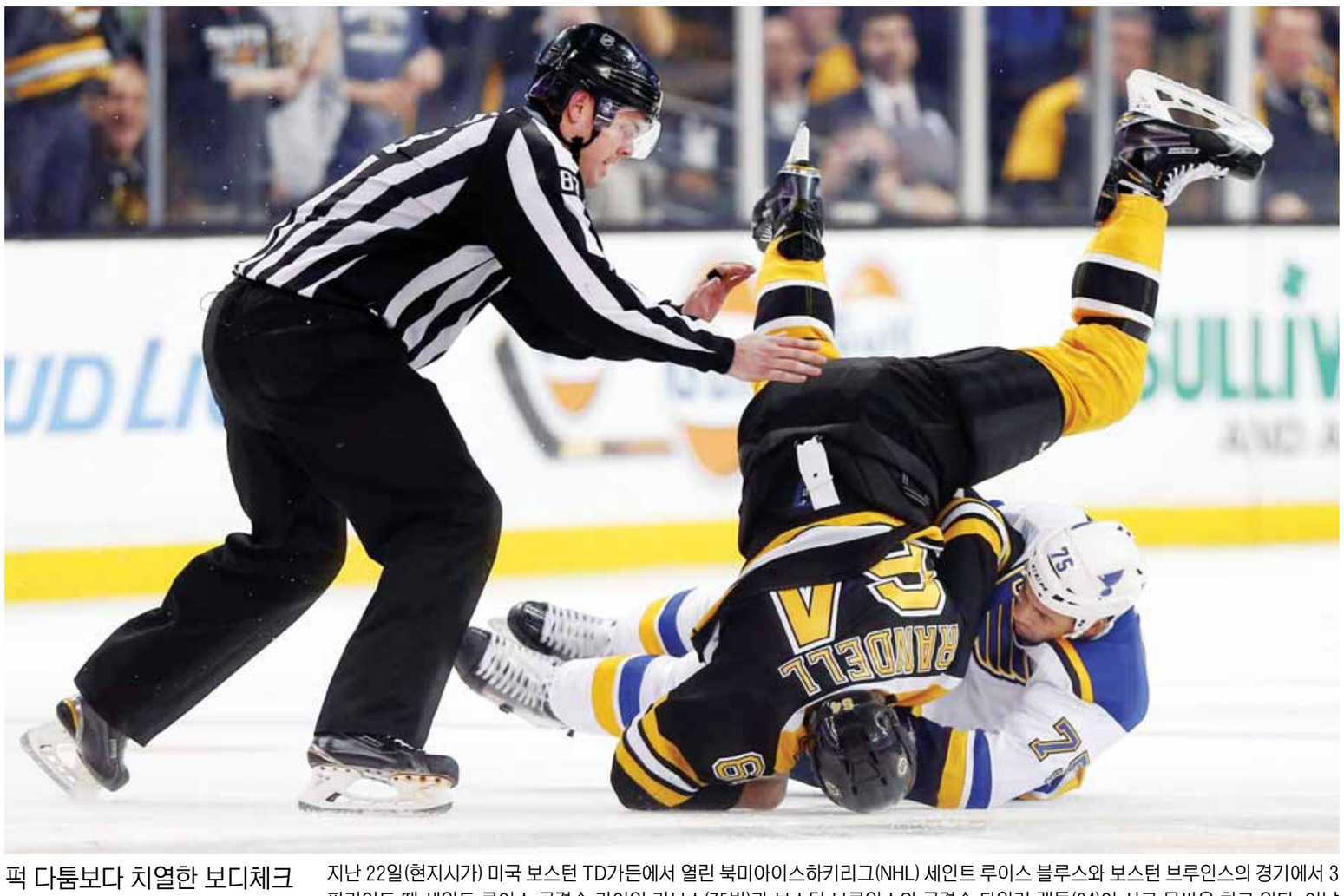
처음 광주를 떠나게 되는 임선영은 새로운 동료와 2년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걱정도 있지만 새로운 출발에 대한 설렘이 있다. 그리고 옛 동료와의 재회도 기대된다. 올 시즌 광주의 잔류를 이끌었던 수비수 안영규는 물론 광주 원년멤버로 함께했던 김은선(MF·수원 삼성)·김동섭(FW·부산 아이파크)·박요한(DF·충주 험멜), 2013시즌에 손발을 맞췄던 김준엽(DF·경남 FC) 등 광주멤버들이 내년 시즌 경찰청 축구단의 이름으로 재결합한다.

임선영은 "오래전에 해왔던 친구, 새로 만나는 또래 친구,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들이 있어서 기대가 된다. 멤버가 괜찮은 편이라서 내년에 성적을 내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된다. 내가 직접 챌린지리그가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겪어봤다. 그래서 걱정이 된다"라며 "처음으로 팀을 옮기는 건데 이제 진짜 시작인가 하는 느낌도 든다. 말단으로 들어가는 건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겠다. 재미있을 것 같고 설레는데 사실 4주 군사훈련이 가장 걱정이다"고 웃었다.

임선영에게 광주는 제 2의 고향이다. 축구선수 임선영이 태어나고 자란 곳.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 고향이다. 그는 광주 선수로 프로 생활을 시작해 지난 5월30일 제주와의 홈경기에서 원클럽 100경기 출전의 위업도 이뤘다.

임선영은 "광주는 축구선수로 태어난 제 2의 고향이다. 광주에서 출발을 해서, 100경기를 이뤘고 처음 유니폼을 갈아입게 됐다"며 "이곳에서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글을 올리고도 싶었는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안 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많은 질타도 받았는데 이제 와 보니까 다 사랑과 관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떠나있는 동안에도 저를 잊지 않으시면 좋겠다. 남아있는 광주 선수들이 잘할 수 있게 더 많은 사랑과 지지 보내주시고 팬분들 모두 행복하시기 바란다"고 마음을 전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퍽 다툼보다 치열한 보디체크 지난 22일(현지시가) 미국 보스턴 TD가든에서 열린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세인트 루이스 블루스와 보스턴 브루인스의 경기에서 3피리어드 때 세인트 루이스 공격수 라이언 리브스(75번)과 보스턴 브루인스의 공격수 타일러 랜들(64)이 서로 몸싸움 하고 있다. 이날 경기는 세인트 루이스가 2대 0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신태용호 '중동 모의고사'

AFC U23 챔피언십 대비 내년초 UAE·사우디 평가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축구 본선 진출을 노리는 신태용호가 내년초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와 잇따라 평가전을 치른다.

대한축구협회는 23일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대표팀이 내년 1월 카타르 도하에서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을 앞두고 중동 국가에 대한 실전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두바이로 출국하는 신태용호는 아랍에미리트 올림픽대표팀과는 1월 4일,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과는 1월 7일(이상 한국시간 23시) 맞붙는다. 올림픽대표팀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역대전적에서 5전3승2무, 아랍에미리트에는 5전4승1패로 앞서있다.

축구협회는 이번 평가전이 실전감각 향상 뿐 아니라 현지 적응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25일까지 울산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하는 올림픽대표팀은 23명의 최종 엔트리를 확정한다.

한국은 올림픽 최종예선에서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예멘과 함께 C조에 속해있다. 이 대회에는 16개 참가국이 4개팀씩 4개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후, 각조 상위 2팀이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리우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선 3위 이상의 성적을 거둬야 한다. /연합뉴스

징계 풀리는 이승우 내달 바르샤 복귀

내년 1월 6일 국제축구연맹(FIFA) 징계가 풀리는 이승우(17·바르셀로나)가 내달 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출국해 팀 훈련에 복귀한다.

이승우 측은 23일 "이승우가 내년 1월 3일 스페인으로 돌아간다"며 "곧바로 팀훈련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우의 소속팀인 바르셀로나는 18세 미만 선수들의 외국 이적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FIFA로부터 유소년팀 선수 10명에 대해 경기 출전 및 훈련 금지는 물론 클럽 축구 아카데미인라 마시아에 머물지도 못하게 하는 징계를 받았다.

이 때문에 만 17세인 이승우는 바르셀로나에서 훈련을 하지 못하게 되자 지난 달부터 수원FC에 합류해 훈련해왔다.

바르셀로나 구단은 이승우를 위해 전담 코치까지 한국에 파견해 웨이트트레이닝과 볼 다루는 훈련까지 시키는 정성을 들였다.

이런 가운데 이승우는 내년 1월 6일 만 18세가 돼 FIFA 징계에서 벗어나게 된다.

바르셀로나 초청으로 지난 20일 2015 FIFA 클럽월드컵 결승전까지 관전하고 돌아온 이승우는 27일 홍명보장학재단이 주최하는 자선축구에 나서는 등 국내 행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3일 소속팀으로 복귀하게 됐다.

이승우가 16일 서울 중계본동 104마을에서 열린 'KFA 축구사랑나누기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연합뉴스

이승우 측은 "그동안 수원FC에서 바르셀로나가 파견한 코치와 함께 강도 높은 훈련을 해왔다"며 "바르셀로나에서는 이승우의 몸 상태가 즉시 경기에 투입해도 될 정도라는 평가는 내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김영권(왼쪽)과 조소현이 트로피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권·조소현 '올해 최고의 축구선수'

김영권(25·광저우 에버그란데)과 조소현(27·인천현대제철)이 올해 최고의 한국 축구선수로 선정됐다.

김영권과 조소현은 2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5 대한축구협회 시상식에서 각각 남녀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다. 2013년과 2014년 2년 연속 수상했던 손흥민(23·토트넘)과 지소연(23·첼시 레이디스)은 올해에는 김영권과 조소현에 영광을 넘겼다. 김영권은 대표팀의 중앙 수비를 지키며 올해 대표팀 20경기 중 17경기를 무실점으로 막는 등 역대 최다 무실점 경기 기록에 크게 기여했다. 또 지난 8월 중국 우한에서 열린 동아시안컵 대회에서는 주장을 맡아 우승을 이끌었고,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든든한 수비로 소속팀 우승에 공신이 됐다.

조소현은 국제축구연맹(FIFA) 캐나다 여자월드컵에서 대표팀 주장으로서 한국 여자축구를 사상 첫 16강으로 이끌었고, 동아시안컵에서도 맹활약했다.

리스펙트상에는 지난 2월 태국에서 열린 킹스컵 우즈베키스탄전과의 경기에서 상대 선수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하고도 응대하지 않고 참는 스포츠맨십을 발휘한 심상민(22·FC서울) 등에게 돌아갔다.

또 올해의 영플레이상에는 FIFA U-17(17세 이하) 칠레월드컵에서 주장을 맡아 U-17 대표팀의 16강 진출에 기여한 이상민(17·울산현대고)과 여자축구 수비수 홍혜지(19·고려대)가 영예를 안았다.

◇2015 KFA 시상식 부문별 수상자 명단

▲올해의 선수상 = 김영권(광저우 에버그란데) 조소현(인천현대제철)

▲리스펙트상 = 심상민(FC서울), 인천 부평구청 어린이축구단, 부산 동래중, 전남광양 제철고

▲올해의 영플레이어상 = 이상민(울산 현대고) 홍혜지(고려대)

▲올해의 지도자상 = 이장관(용인대) 김진형(대전 한빛고)

▲올해의 심판상 = 김덕철 이상민 박지영 고은비(이상 1급 심판)

▲히든히어로상 = 송숙(의무 트레이너) /연합뉴스